

광주·전남, 종부세 납부대상자·세액 늘었다

종부세 납부대상자 광주 7000→10000명·전남 4000→8000명 세액 광주 163억원→1224억원 7.5배 급증...전남도 6.5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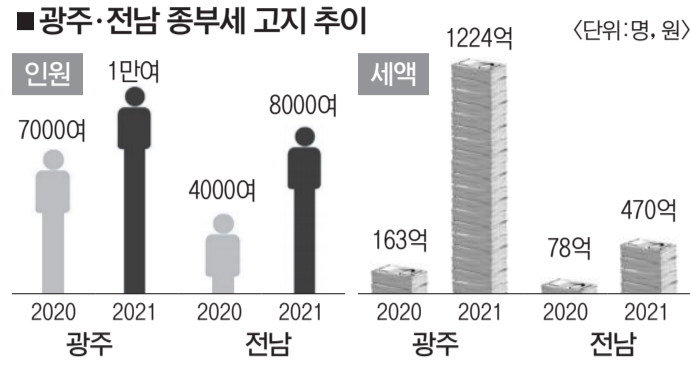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주택분 종부세액은 전년 대비 무려 7배 이상 경증 뛰어 올랐고, 전남도 6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분 종부세도 역시 과세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주택 가격 또한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 종부세액은 더 오를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25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개인과 법인 등 1만여명으

로, 지난해 7000여명에 비해 42.9%(3000여명) 증가했다.

납부대상자 증가와 함께 고지세액 역시 크게 늘었는데, 고지된 세액은 지난해 163억원에서 올해 1224억원으로 무려 7.5배(650.9% ↑·1061억원 ↑)나 급증했다. 광주의 종부세액 상승률은 충북(9배)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것이기도 하다. 또 1인당 평균 납부할 세액은 1224만원인 셈이다.

전남지역도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전년 4000여명에서 올해 8000여명으로 2배(100% ↑·



4000여명 ↑)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지세액 증가율은 올해 47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8억원에 비해 6배(502.6% ↑·392억원 ↑)나 폭증한 것으로, 1인당 평균 587만5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주택분 종부세 외에도 토지분 종부세 역시 과세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고지된 광주지역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과세대상은 2307명으로 전년 1880명에 비해 22.7%(427명) 늘었고, 세액은 150억원에서 246억원으로 64%(96억원)이나 늘었다.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소유한 내대지·잡종지 등의 공시가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전남지역 역시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가 2036명, 611억원으로, 전년 지난해 1618명, 372억원에 비해 각각 25.8%, 64.2% 증가했다.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한 상가·공장·부속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는 광주가 전

년(89명) 대비 70.8%(63명) 늘어난 152명, 세액은 지난해(21억원)보다 166.7%나 급증한 56억원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61명에서 99명으로 62.3% 늘었고, 세액은 182억원에서 230억원으로 2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도 종부세는 더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며 “납세인원 및 세액은 재산세 변동과 납부기간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면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상의 '지역경제 발전' 광주상공대상 수상자 5명 선정

경영우수 최갑렬 삼일건설 회장 고용우수 임지선 보해 대표 등



삼일건설 최갑렬 보해양조 임지선 태평건설 노윤선 하나은행 정민식 세방전지 김근순

광주상공회의소가 25일 제9회 광주상공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광주상공대상은 지역경제 발전과 상공업 진흥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를 발굴·표창해 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2012년에 제정했다.

이번 상공대상 수상자는 총 5명으로 ▲경영우수 부문 최갑렬 삼일건설(주) 회장 ▲고용우수 부문 임지선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기술혁신 부문 노윤선 태평건설(주) 대표이사 ▲지역공헌 부문 정민식(주)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부회장 ▲노사상생부문 김근순 세방전지(주) 광주공장장이다.

최갑렬 회장은 국가기간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78% 증가하는 등 혁신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한 점을 인정받았다. 임지선 대표이사는 “지역과 상생”을 경영철학으

로 2015년 자회사 ‘넙과함께’를 설립해 경력단절 여성을 적극 채용,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임직원 240여명의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이며 고용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윤선 대표이사는 실내건축공사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끊임없는 공정개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성장을 이어가고, 2019년 반자동화 설비공장 준공 이후 생산성 향상(17.1%) 및 불량률 감소(19%) 등 경쟁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정민식 부회장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와 장학재단 및 중·고교 장학금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김근순 광주공장장은 근로자 전세자금 및 학자금 전액지원 등 노사관계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광주상의는 우수기업 모범근로자로 김종식 대창운수(주) 실장 등 16명도 발표했다.

한편 제9회 광주상공대상 시상식과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표창은 26일 오후 4시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오토랜드 광주, 온라인 K-페스티벌 개최

우수 개선 사례 발표·경연 등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주(공장장 박래석)는 25일 임직원들을 온라인으로 초대해 ‘제3회 K-페스티벌’을 개최했다.

K-페스티벌은 오토랜드 광주의 우수 개선 사례 발표와 경연을 통해 발표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임직원들이 함께 지식을 공유해 발전해나가는 취지에서 열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

염예방을 위해 기아교육센터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K-Cube 우수사례 공유’와 ‘K-Quiz 부서대항 왕중왕전’으로 약 80분간 이뤄졌다.

우선 우수사례 공유에서는 올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개선 성과를 거둔 5개팀이 자신의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온라인 임직원 참여로 진행된 K-Quiz 부서대항 왕중왕전에서는 상식과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기아 관계자는 “K-페스티벌은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식을 나누며 자신의 분야에서 개선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 행사가 임직원들이 지식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 6월 말 계약까지 대상 확대

폐업해도 남은 기간 세액 공제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의 이번 안내는 이달 9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임대차 계약의 범위를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 체결분에서 올해 6월 30일 이전 계약 체결분으로 확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

용하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사태 이후 계약분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다. 즉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중도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제도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



“안경으로 개성표현 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3층에 이달 신규 입점한 프리미엄 안경 전문점 ‘소모스’에서 고객이 시력을 진단하고 있다. 이 매장은 오는 30일까지 선글라스를 10~30% 할인 판매한다. <롯데쇼핑 제공>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